



남원시보건소, 심상생생 건강교실 84곳 추가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보건소가 연중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큰 사랑과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심상생생 건강교실'을 올해는 전년도 74곳 대비 10곳을 추가해 84곳에서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 동안 203개 읍·면·동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운영했던 건강교실 참여 어르신들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조동작과 근력 강화운동으로 '하의활동이 어려운 추운 겨울 경로당에 나와 땀 흘리며 한 운동이 건강관리와 외로움을 나눌 수 있어 항상 든든하다'며, 95%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읍면동 지역별 사업 담당자와 전문 체조강사가 함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주2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건강검진과 치매검진, 우울증 검사, 건강상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북산장학회, 상반기 장학금 2610만원 지급

재단법인 이북산장학회(이사장 성하익)는 25일 상반기 장학금으로 전주호성중학교 2학년 김태연 외 14명(연 50만원), 전라고등학교 1학년 최용훈 외 26명(연 150만원) 등 총 42명에게 261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창립 17주년을 맞아 장학생 186명을 배출했다. 특히 대학생 회원에게는 연수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총 67명에게 제공했다.

이북산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중장년층 특화된 잇몸관리 예방법 교육

순창군이 중장년층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강 건강 관리 교육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중 진행되는 이번 구강건강관리 교육은 바쁜 일상 속에서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직장을 직접 방문해 성인의 올바른 양치 방법, 치주 질환의 원인 및 예방법, 구강 관리 용품 사용법, 치과 정기 검진의 중요성 등을 다룬다.

또한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 개별 맞춤 구강관리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약천사 법성스님 쌀 20포대 기탁

무주군은 무주읍 약천사 법성스님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쌀 20포대(1포대 10kg)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법성스님은 "나만 배불러서는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라며 '무주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고루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쌀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약천사 법성스님은 지난 2021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을 기탁하기 시작했으며 해마다 30포대(1포대 10kg)씩 지난해까지 총 90포대를 기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꾸길”

김정옥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전북대에 80억원 약정액 중 60억원 기부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김정옥 이사장이 80억원 약정액 중 60억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 약정액은 전북대 개인 기부 중 가장 큰 액수다.



이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대 학생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0억원을 약정, 2022년에도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60억 원을 기부 약정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2019년 10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10억 원을 더해 학생 장학금 약정액을 2년 만에 모두 기부했다. 이 금액은 현재 학생들의 어학연수 지원이나 독일대학으로의 교환학생 장학금, 학문 후속세대 육성 장학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60억 원을 약정한 김 이사장은 그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3

년 10억 원, 올해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기부해 실제 삼성문화회관의 시설 확충 등에 활용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매년 10억 원을 기부해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을 통한 도민과 대학 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김정옥 이사장님께서 우리 학생과 구성원 그리고 지역민에 이르기까지 넓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데 대해 대학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옥 이사장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해나가는 어머니의 소중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제2의 고향인 전주와 전북대에 기부를 하고 있다"며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정읍시 농민회, 영농발대식·풍년기원제 개최

정읍시 농민회는 지난 22일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영농발대식을 열고 올 한해 영농의 무탈과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운 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농협장 각 농민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발대식은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농업인들의 영농 시작을 알리는 뜻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행사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책현안시, 김순자 시 여성농민회 회장의 개회 선언, 농민 의례등 순으로 진행됐다.

시 농민회는 영농 준비 강화를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후 위기대응 특별법, 국가 책임 농정실현,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등을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인 농민들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자연재해 없이 풍년 농사의 한 해가 되어 안정적인 농업을 하길 간절히 기원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을 지키고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농민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읍민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도시재생 기초·현장지원센터 업무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신활력관에서 행정과 기초 및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센터와 행정 간 협업을 강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정책방향과 지역 상황에 맞춰 도시재생사업 또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방안을 모색했다. 또, 추진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짚어가며,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며 올해 계획된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는 요충동, 성산지구 현장지원센터와 신동지구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가 있으며, 각 지구별 센터장이 상근 근무로 전환되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김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센터와 행정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광활면 명품 햇감자, 은파리서 첫수확

김제 광활면 명품 햇감자가 25일 은파리 최원근 농가들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풍성한 수확이 이어질 예정이다.

광활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광활감자는 280여 농가가 502ha를 재배해 전국 보급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가락동 시장 등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작년에는 감자 가격이 높아 20kg 한 박스에 상품인 경우 10만원을 훌쩍 넘었고 박스당 평균가격도 5~6만원 정도에 거래됐다.

광활 햇감자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바다를 막아 만든 논이 오염되지 않은 간척지 토양에다 풍부한 미네랄과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 감자생육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포실포실한 맛만이 나는 감자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재경운봉향우회 정기총회 개최

남원 운봉읍은 지난 23일, 재경운봉향우회(회장 김선일) 서울에서 제34회 재경운봉향우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향우회에서 김선일 회장, 하창용 초대 회장, 배분남 운봉장학회 이사장 등 200여 명의 내·외·귀빈과 향우들이 참석하고 운봉읍에서는 이은주 읍장, 신동열 운봉에향회장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읍장은 제94회 춘향제,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고향사랑기부채 등 남원의 주요 시정을 홍보하고 향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김선일 회장은 "이곳에서 고향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향우회기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향우회에서는 고향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 교육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은 최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을 포함 25여명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 하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 제인인 주민센터에 직접 갈 필요도 없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앱을 로그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동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여기로 앱을 다운받아 회원에 가입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 여기로 앱에서 배출신고 △내가 버릴 물건의 품목을 선택하면 되며, 별도의 앱 이용 수수료 없이 지자체에서 정한 폐기물 수거비용만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앱이다.

배출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은 가구·주방용품·생활용품·냉난방용품·운동기구·유아용품·기타제품 등이며,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법중 고를 수가 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화면에서 내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배출번호가 나오며, 배출이 번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거필증 스티커'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소선자 동장은 "남원시에서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동방이노베이션 김준식 대표,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

정읍시 북면 농공단지에 위치한 (유)동방이노베이션 김준식 대표가 25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준식 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정읍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활성화로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주신 김준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유)동방이노베이션은 2005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과 재난방재계측시스템 등의 기술력을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정읍형 공유인 이집 지원사업과 청소년 공감존 운영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피렌체 영화제서 한식문화 홍보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2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참가,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문화를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와 도현욱 교수가 18~24일 7일간의 일정으로 파견됐다.

파견 기간 한식조리학과 교수진은 전주 한식문화 홍보사절단으로 영화제 개막식에 앞서 열린 21일(현지 시각) VIP 한식 리셉션에서 잡채, 오이신, 김밥, 김치전, 부추전, 닭강정, 김부각, 유과, 약과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하며 선보였다.

특히 전주부침밥은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함께 동시에 제공,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에는 차경희·도현욱 교수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호텔조리학교인 SAIIT 피렌체 호텔메니지먼트 학교에서 조리학과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문화의 특징에 대한 특강도 펼쳤다. /장은성 기자